

박지겸의 애한정(愛閑亭) 건립과 <애한정팔영>의 차운 양상

어강석*

- I. 머리말
- II. 애한정 건립과 애한정 관련 차운 양상
 - 1. 애한정 건립 배경과 과정
 - 2. 애한정 관련 시문의 창작 양상
- III. 박지겸 <애한정팔영>의 미적 특징
 - 1. 직관(直觀)의 구체적 묘사
 - 2. 내재된 우국(憂國)의 충심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중기 충북 괴산에 은거하였던 박지겸의 삶의 과정을 살피고 문학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지겸은 평생 ‘충효(忠孝)’를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보였으며,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나라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실천하였다.

말년에 애한정을 짓고 은거하면서 주위의 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 오봉 이호민, 월사 이정귀, 남창 김현성, 용계 김지남 등이 모두 <애한정팔영>을 지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애한정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가적 수양과 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박지겸이 지은 <애한정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애한정팔영>은 애한정 주위의 뛰어난 경치 중에서 여덟 가지를 선정한 것으로 오랫동안의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firiston@chungbuk.ac.kr.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지겸의 <애한정팔영>은 이호민이나 이정귀의 시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호민과 이정귀의 시는 직접 보지 않고 박지겸이 제공한 기문의 내용을 보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관념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애한정팔영>을 통해 본 박지겸의 생각은 한시도 나라와 시국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잊은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지겸이 지은 <애한정팔영>은 물론, 그 외에 남긴 시문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주제어: 박지겸, 애한정, 애한정팔영, 이정귀, 이호민, 송시열, 괴산.

I. 머리말

애한정(愛閑亭)은 괴산을 검승리에 있는 정자로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박지겸(朴知謙, 1549~1623)이 1614년(광해 6)에 세운 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당의 역할을 겸하였다. 박지겸의 자는 익경(益卿)이며, 호는 애한정이다. 본관은 함양이며, 조부는 세계 최초 아동교과서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저술한 소요당 박세무(朴世茂, 1487~1564)이다. 부친은 응립(應立)으로 진사에 급제하여 수안군수(遂安郡守)를 지냈으며, 모친은 숙인(淑人)으로 남양홍씨 윤균(潤均)의 따님이다.

박지겸은 1549년(명종 4)에 한양 반송방(盤松坊, 지금의 서대문구 일대)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그의 집안이 대대로 세거하였는데, 선대로부터 성품이 곧고 의를 좋아하였으며 신실하고 우애가 깊은 집안의 유풍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고도 박씨임을 알았다고 하며,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공경굴(公卿窟)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박지겸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 남양 홍씨가 돌아가셨으며, 10세에 아버지 수안공의 병환이 위중하자 몸소 극진히 간병을 하였다고 한다. 1582년(선조 15)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계모인 전주 이씨를 극진하게 모셨으며, 동생들을 잘 이끌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적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강화도로 들어가 의병을 모아 의주로 임금을 호종하였으며, 이 공으로 창릉참봉에 제수되었다. 또한 선조의 명을 받고 적중으로 들어가 원묘주(原廟主)를 봉심하고 강화도로 이안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내침시 봉사가 되었으며, 1608년에 선조가 승하하자 국장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다. 1615년(광해 7) 상의원 별좌에 제수되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공정하여 이것저것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관직에 세 번 나아갔다가 세 번 물러났다.

만년에 괴산에 은거하여 애한정(愛閑亭)을 짓고 소요하면서 <애한정팔영>을 지었다. 이 시에 월사 이정귀(李廷龜, 1564~1635), 오봉 이호민(李好閔, 1553~1634), 남창 김현성(金玄成, 1542~1621), 용계 김지남(金止男, 1559~1631) 등의 문인들이 차운하여 시를 남겼다.¹⁾ 이후에도 백곡 김득신(金得臣, 1604~1684)도 차운시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박지겸의 <애한정팔영>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잇달아 차운하여 시를 남겼으며, 애한정의 건립과 중수, 이권이 있을 때마다 월사, 오봉은 물론 만회 권득기(權得己, 1570~1622),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연재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은계 이근원(李根元, 1840~1918) 등이 기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애한정팔영>과 관련하여 장암 정호(鄭澹, 1648~1736), 직재 이기홍(李箕洪, 1641~1708), 염재 정실(鄭稟, 1701~1776) 등이 발문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박지겸이 건립한 애한정은 단순히 괴산이라는 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평범한 정자가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지방의 유림과 사족들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박지겸이 지은 <애한정팔영>과 일련의 시들에 대한 차운시 창작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애한정’은 괴산에 자리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문화로서의 가치와 의의가 높은 곳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애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연호가 중원의 누정문학을 논의하면서 집경시로서 <애한정팔영>을 분석한 것(박연호, 2008: 1-32)이 유일하다. 누정집경시는 시인이 누정에서 주변의 풍광이 뛰어난 여러 곳의 풍경들을 보고 그 풍경들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 연작시 형태로 지은 시를 말한다(최경환, 2002: 299). 따라서 박지겸이 애한정을 건립하고 주위의 뛰어난 경관 8가지를 정하고 이를 시로 읊은 <애한정팔영시>는 집경시로서의 특성들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아직 애한정의 건립 과정과 시대에 따라 중수되고 이권되었던 내력은 물론, 그 과정에서 창작된 <애한정팔영시>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애한정의 건립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문과 발문, 그리고 <애한정팔영시>의 차운 양상을 통하여 어떤 문화적 맥락이 형성되었으며, 의의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조선 후기 지방 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

1) 『逍遙堂五世行蹟』, 「通訓大夫行尙衣院別坐朴公行狀」.

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활성화되지 못한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먼저 박지겸이 애한정을 세운 과정과 시대에 따라 중수되고 이진된 내용, 그리고 <애한정팔영>의 차운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조선 후기 애한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방 유림과 사족들의 문화적 교류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애한정 건립과 애한정 관련 차운 양상

1. 애한정 건립의 배경

박지겸이 괴산에 들어와 우거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막내 동생인 박지겸(朴知謙, 1573~1635)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괴산으로 옮겨가서 살았다는 기록을 보면, 이미 1597년(선조 30)에 괴산에 머물 수 있는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하자 국장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다 일을 마치자 물러났으며, 광해군의 폭정을 피해 왔고, 애한정을 1614년(광해 6)에 완공하였음을 볼 때, 1600년을 좌우로 괴산에 옮겨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괴산으로 온 것은 처가인 부안임씨의 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역을 박지겸이 쓴 <애한정기> 앞부분에 잘 서술되어 있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돌아갈 곳이 없어서 처자들을 데리고 괴산의 괴탄(槐灘) 위에 와서 우거하니 오래전부터 처가의 전장이 있던 곳이었다. 힘써 농사를 지으며 제사를 받들고 가솔들을 부양할 만하였다. 다만 전란의 뒤여서 지낼 만한 집이 없어서 몇 칸의 시골집을 샀더니, 낮고 좁아서 마음을 펼치기에 마땅하지 않아, 매일 지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²⁾

왜란이 일어나자 박지겸은 가족을 이끌고 강화도로 들어갔으며, 병난이 끝나고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자 처가의 전장이 있었던 괴산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힘써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받들고 가솔들을 부양하기에는 모자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거주할 집이 없어 작은 시골집을 샀더니 너무 낮고 좁아서 살기에 불편하였다.

2) 朴知謙, <愛閑亭記> : 自經壬辰, 無所於歸, 挈妻孥來, 寓于槐州槐灘之上, 以妻家舊庄也. 力耕則可以奉祭祀畜家累. 但兵燹之後, 無可寓之舍, 買得村家數間, 卑湫狹隘, 無以宣鬱, 每以棲息無所爲歎.

그래서 항상 마음을 펴고 한가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며, 마침 집 앞에 있는 밭을 구매하여 이곳에 애한정을 지었다.

마침 사는 집 앞에 밭 두어 두렁이 있고, 밭 가에 시냇물이 남쪽으로부터 강 입구로 흘러들어왔다. 그 밭을 사서 정자 몇 칸을 짓고 ‘애한(愛閑)’이라고 이름 지었다. 밭가 시내에서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 정자 앞에 네모난 못을 파니,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위아래로 한가지였다. 연꽃이 활짝 피고 물고기가 가득하여, 보고 즐기는 여가에 또한 그 열매를 따고 그 물고기 회를 먹을 수 있었다. 못 가운데 작은 섬이 있어 박달나무며 단풍나무를 섞음섞음 심으니, 그 사이에 예닐곱이 앉아 바둑을 둘 만하였다. 못의 서쪽에 뜰이 있어 티끌도 없이 깨끗이 쓸고 장송(長松)과 수죽(修竹)을 심으니 푸르게 우거져 사계절 한결같은 절개를 드러냈으며, 그윽한 꽃과 기이한 풀을 가지런히 그 가운데 심으니 울긋불긋한 꽃들이 계속해서 피고 지며 사계절 동안 끊임이 없었다. 뜰 주변에 몇 이랑 텃밭을 일구어 과일을 심으면 더운 여름에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손님을 대접할 만하였다.³⁾

박지겸의 괴산에 우거한 내역을 서술한 <애한정기>의 앞부분에 이어서 애한정의 위치와 구조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밭 가로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보고, 연못을 파고 도랑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니 운영천광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운영천광(雲影天光)’은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을 말하는 것으로 대자연의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말한다. 주희(朱熹)가 지은 <관서유감(觀書有感)>이라는 시에서 “반이랑 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있으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半畝方塘—鑑開，天光雲影共徘徊)”라고 하여,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읊은 것이다. 박지겸의 기문에 서술된 것도 주희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애한정을 건립한 가장 큰 목적이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를 성찰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인식한 애한정에서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이어서 연못 가운데 작은 섬을 만들고 나무들을 섞어 심고, 그 사이에서 예닐곱의 사람들이 모여 바둑을 둘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조성은 주인 홀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주위의 문사들이 함께 모여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며 교유할 수 있는

3) 朴知謙, <愛閑亭記> : 適以所寓之前，有田數頃，田畔溪流自南而來入于江口。買其田而作亭數楹，名曰愛閑。田畔之溪，決溝通流，作方塘于亭前，雲影天光上下若一。芙蓉盛開，游魚於物，賞玩之餘，亦可以採其實，而膾其魚矣。中有小島，檀欒楓樹，相雜以植，其間六七人可坐以局戲也。池西有庭，淨掃無塵，樹以長松修竹，蒼然蒼然，四時一節，幽香異草列植其中，紅紅白白，皆續開謝，貫炎涼而不絕矣。庭邊數畝，作圃種果，溽暑之時，亦可給茹而供客矣。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연못 서쪽의 뜰을 먼지도 없이 깨끗이 쓸고 장송(長松)과 수죽(修竹)을 심었으며, 이들 나무가 푸르게 우거져 사계절 한결같은 절개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이것도 소나무와 대나무는 전통적으로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고 푸르른 것이 특징이다. 박지겸은 이들 나무를 통해 바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지조와 절개이며, 이것은 언제나 푸르른 나무들처럼 절대 변함이 없을 것임을 굳게 확인시킨 것이다.

정자 동쪽 몇 리쯤에는 송명산(松明山)이 있어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아침저녁의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맑거나 비가 올지 금방 알 수 있어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며, 보이는 것이 천만 가지로 같지 않았다. 때로는 푸른 노을 한 줄기가 산허리를 두르면 해가 지기 전에 비가 내리므로 아랫마을 사람들이 그 노을을 보고 비가 올 줄을 알았다(松岳晴嵐)(孤村暮烟). 작은 봉우리 한 줄기가 동쪽에서 뻗어내려 북쪽으로 강가에 이르러 만 길의 푸른 절벽이 불끈 솟아 강물에 닿았으니, 이는 곧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진원공(晉原公) 유근(柳根)을 위하여 은병암(隱屏巖)이라 쓴 곳이다(蒼壁落照). 외딴 산 한 줄기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또한 강에 닿았는데, 푸른 솔과 층층의 바위가 푸른 절벽과 함께 마주하여 솟아 마치 석문(石門)과 같아서 정자를 위해 기이한 경치를 다투는 듯하였다(石磴行人). 그 가운데 강물이 흐르지 않고 모였으니, 그 깊이가 밑이 없어서 뛰어노는 고기떼가 수없이 많으니, 일엽편주로 고기잡이를 쉴 수가 없다(槐灘釣魚).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물이 불어나면 한강의 장삿배가 돛대를 연이어 물을 거슬러 와 앞포구에 정박하면, 또한 강산에 뛰어난 경치를 더하였다(江浦商舶). 서남쪽 5리쯤에 또 겹겹의 산과 봉우리가 그림도 같고 구름도 같이 둘러 솟아서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여 보아서 싫지 않으니, 송명산(松明山)과 다름이 없었다. 주인옹이 나이도 들고 일도 없어 날마다 손자들 두셋과 함께 여기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글을 읽고 가르치는 틈에 혹 거문고를 타고 혹 바둑을 두며 혹 거닐고 읊고 앉아서 낚시질하며 세상 걱정을 떨쳐버리고 백년을 보내려 하니 이 사이의 회포가 한가하지 아니한가? 한가함을 사랑하기 나와 같은 이 누구일까? 이것이 곧 애한정(愛閑亭) 경치의 대략이고 정자 이름을 지은 실상이다.⁴⁾

4) 朴知謙, <愛閑亭記> : 亭之東數里許, 有松明山, 峰巒削立, 草木暢茂, 朝暮之態, 晴雨之狀變幻, 頃刻悅可人, 目者千萬不同. 時有青霞一抹, 帶于山腰, 則不日而雨, 其下居民見其霞, 而知其雨. 小峰一支, 自東逶迤, 而北抵于江岸, 萬丈蒼壁斗起枕流, 此乃華使朱之蕃, 爲晉原相公, 所題隱屏巖也. 孤山一脈, 自北而東亦抵于江, 青松層巖與蒼壁相對而峙, 有若石門然, 而爭效奇於亭矣. 其中江水停滯不流, 其深無底, 騰波之魚, 游泳無數, 一葉漁舟, 撈漁不息. 秋夏之交, 水漲則漢水商船, 連檣遡流來泊前浦, 此亦江山一助勝也. 西南五里許, 又有層巒疊嶂, 如書如雲環擁而峙, 悅人目, 看不厭者, 與松明無異. 主人翁年老無事, 日與兒孫數三, 臥於斯起於斯, 讀書教誨之暇, 或彈琴敲碁, 或行吟坐釣, 逍遣世慮, 而近百年此間之懷閑耶否? 閑之愛同余者何人? 此乃愛閑亭景致之大概, 而作亭名之實也.

이어서 ‘애한정팔경’의 실체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박지겸이 설정한 애한정 주위의 여덟 가지 경치는 <송악의 맑은 날 산기운(松岳晴嵐)>, <연꽃 핀 연못에 비친 달(荷塘夜月)>, <외딴 마을의 저녁 연기(孤村暮烟)>, <푸른 벼랑에 지는 낙조(蒼壁落照)>, <돌길을 가는 행인(石磴行人)>, <강 포구에 떠 있는 상선(江浦商舶)>, <절에서 승려를 찾다(佛寺尋僧)>, <괴탄에서 낚시하다(槐灘釣魚)>이다. 위의 기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치를 기문의 묘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 <연꽃 핀 연못에 비친 달(荷塘夜月)>은 앞서 운영천광이 비치는 연못임을 알 수 있지만, <절에서 승려를 찾다(佛寺尋僧)>는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박지겸이 평소에 방문하던 절이 있었고, 그곳의 스님과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늘그막에 애한정에서 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여가가 있으면, 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며, 산책, 낚시질을 하며 세상 걱정을 잊고 사니 어찌 한가하지 않으며, 이런 한가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더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세상에 서 제일 한가함을 즐기는 사람은 바로 자신임을 자부하고 있다.

이처럼 박지겸은 애한정을 지은 이유와 주위에 두었던 나무와 꽃, 연못 등 어느 하나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이것은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심신 수양의 의지,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 등을 담고 있음을 기문에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의 경치를 여덟 가지 선정하고 이를 통해 천지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逍遙堂五行蹟』에 의하면 박지겸이 <애한정기>와 <애한정팔영>을 지은 시기는 만력 갑인년 가을 7월로 1614년(광해 6) 66세 때이다. 이보다 몇 개월 앞서 오랜 친구인 오봉 이호민(李好閔, 1553~1634)에게 먼저 기문을 부탁하였는데, 이호민의 기문과 시는 만력 갑인년 소춘(小春)에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 1614년 정월이다. 이호민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웃 마을에 살았음을 밝히고, ‘애한(愛閑)’ 보다는 ‘한한(閑閑)’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편액과 <팔영시>를 써서 보내주었다.⁵⁾

또 한편의 기문은 월사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지었는데, 먼저 지은 이호민의 기문을 보고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서 다시 ‘애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간기에 “萬曆甲寅孟冬”라고 되어 있어 같은 해인 1614년 10월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로써 본다면, 애한정의 기문은 1614년 정월에 이호민이 제일 먼저 지었으며, 이후에 박지겸이 짓고, 다시 이정귀에게 지어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아마도 건물이 거의

5) 李好閔, 『五峯集』卷8, 「記跋」, <閑閑亭記>.

6) 李廷龜, 『月沙集』卷37, 「記」上, <愛閑亭記>.

완공될 즈음에 이호민에게 기문을 부탁하였으며, 7월에 완공되자 자신이 기문을 지었으며, 다시 이정귀에게 ‘한한(閑閑)’ 이라고 고쳐준 이호민의 이름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애한(愛閑)’ 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이미 정자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애한정팔경’ 또한 이호민과 이정귀가 기문을 지으면서 시도 지었다고 하였음을 볼 때, 1614년 정월 이전에 선정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박지겸이 직접 부탁해 받은 기문은 만회 권득기(權得己, 1570~1622)가 지은 것도 있다. 권득기는 한양의 반송방에서 이웃으로 살았으며, 박지겸의 막내 동생 박지계와 매우 깊은 학문적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권득기의 두 아들인 권주(權誅)와 권시(權誅, 1604~1672)가 박지계의 형이며 박지겸의 동생인 박지인(朴知認)과 박지경(朴知警)의 사위가 되어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었다(전재동, 2000: 18). 따라서 권득기는 박지겸을 존장으로 대하였다. 박지겸이 권득기를 만난 자리에서 애한정을 지은 내역을 설명하고, 이호민과 이정귀가 지은 기문을 보여주며 기문 짓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권득기가 이들의 기문을 읽고 <애한정후기(愛閑亭後記)>를 지었던 것이다.⁷⁾ 기문의 내용과 권득기의 몰년을 살펴보면, 이호민, 박지겸, 이정귀가 기문을 지었던 1614년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된다.

박지겸의 사후에 애한정은 많이 퇴락하였는데, 그의 손자인 박정준(朴廷俊)이 1673년(현종 14) 주변으로 옮겨 지었다. 이미 60년이 지나자 많이 무너져서 새롭게 고칠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세가 빈한하여 오래도록 이루지 못하였는데, 당시 군수였던 황세구(黃世耆)가 자신의 녹봉을 쪼개서 옛터에 새롭게 더하여 짓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역은 송시열이 지은 기문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⁸⁾

애한정은 이후로도 정실(鄭室, 1701~1776)의 기문에 따르면 1772년 중수하였고,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지은 중수기에 따르면 1895년에도 다시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14년에도 이원근의 중건기가 남아 있어 근대에 들어 다시 중건되었다.

애한정의 건립과 중수, 중건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관련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7) 權得己, 『晩悔集』卷2, 「雜著」, <愛閑亭後記>.

8) 宋時烈, 『宋子大全』卷143, 「記」, <愛閑亭記>.

[table 1] 애한정의 건립·중수·중건 관련 기록 Records of the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Aehanjŏng Pavilion

번호	작 자	제 목	작성시기	출전
1	李好閑 (1553~1634)	<閑閑亭記>	萬曆 甲寅 1614년 小春	『五峯集』卷8 『逍遙堂五世行蹟』
2	朴知謙 (1549~1623)	<愛閑亭記>	萬曆 甲寅 1614년 7월	『逍遙堂五世行蹟』
3	李廷龜 (1564~1635)	<愛閑亭記>	萬曆 甲寅 1614년 孟冬	『月沙集』卷37 『逍遙堂五世行蹟』
4	權得己 (1570~1622)	<愛閑亭記>		『晚悔集』卷2 『逍遙堂五世行蹟』
5	宋時烈 (1607~1689)	<愛閑亭記>	崇禎 甲寅 1674년 孟夏	『宋子大全』卷143 『逍遙堂五世行蹟』
6	宋時烈 (1607~1689)	<愛閑亭詩文跋>	崇禎 甲寅 1674년 孟夏	『宋子大全』卷147 『逍遙堂五世行蹟』
7	李箕洪 (1641~1708)	<題老先生愛閑亭移創記後>	乙酉 孟陬 1645년 正月	『逍遙堂五世行蹟』
8	鄭澍 (1648~1736)	<題愛閑亭詩記帖後>	崇禎 乙酉 1645년	『丈巖集』卷25 『逍遙堂五世行蹟』
9	鄭宗 (1701~1776)	<愛閑亭重修記>	壬辰 1772년	『逍遙堂五世行蹟』
10	朴鳴陽	<題愛閑亭記後>	乙酉 孟秋 1765년	『逍遙堂五世行蹟』
11	宋秉璫 (1836~1905)	<愛閑亭重修記>	乙未 夏 1895년	『淵齋集』卷26
12	李根元 (1840~1918)	<愛閑亭重建記>	壬寅 1914년	『銀溪集』卷16

2. 애한정 관련 시문의 창작 양상

박지겸은 이호민과 이정귀에게 애한정의 기문을 청하면서 이미 정해놓았던 ‘애한정팔경’에 대한 시도 함께 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그대의 말에서 한가함을 당해서야 한가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대 또한 나의 말에서 한가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는 서로 얻은 것이 많지 않은가? 마침내 그것을 고쳐 ‘한한(閑閑)’이라 하고, 김주우로 하여금 그 편액을 써서 돌려보내고 이에 그대가 명한 팔영시를 지어 호산의 좋은 경치를 기록하노라.⁹⁾

9) 李好閑, 『五峯集』卷8, 「記跋」, <閑閑亭記>: 吾於君言, 知當閑其所閑者, 君亦於吾言, 知閑在我而不容愛焉, 則是互有所得也, 不其多乎哉? 遂改之曰閑閑, 使金生柱宇書其篇而歸之, 仍賦君所命八詠詩, 以志湖山之勝槩云.

이 정자 주위, 호산(湖山)의 경치로 말하자면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에 익경이 명명(命名)한 팔경(八景)을 시로 읊노라.¹⁰⁾

이처럼 박지겸의 요청에 따라 이호민과 이정귀는 각각 <애한정팔영>을 지어 보냈다. 이호민은 오언절구로 8수, 이정귀는 칠언절구로 8수를 지었으며, 이후 차운되는 시의 계열이 오언절구는 이호민의 운을 따랐고, 칠언절구는 이정귀의 운을 따라 짓게 된다. 물론 당연히 박지겸도 <애한정팔영>을 남기고 있지만, 대체로 이후의 문인들은 이호민과 이정귀의 시에만 차운하고 있다. 아마도 이 둘의 시는 그들의 문집인 『오봉집』과 『월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박지겸은 문집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문인들이 그의 시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차운시는 이호민의 오언절구를 따라 지은 것이 훨씬 많다. 오언절구의 차운시에서는 남창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의 시가 주목된다. 김현성은 본관이 김해(金海)이고 고조부가 탁영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이다. 자는 여경(餘慶), 호는 남창(南窓)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로 석봉 한호(韓濩, 1543~1605)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던 송설체의 대가였다. 김현성은 박지겸은 물론, 이호민이나 이정귀보다 나이가 많지만, 이호민이 지은 <애한정팔영>에 차운을 남기고 있다. 김현성의 문집인 『남창잡고(南窓雜藁)』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소요당오세행적』에 전하고 있다. 설명을 보면, “남창노인이 박봉사와의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삼가 오봉 상공의 운을 따라 짓다(南窓老人, 爲朴奉事舊契 謹步五峯相公韻)” 라고 되어 있다. 박봉사는 물론 박지겸을 말한다. 박지겸은 1594년(선조 27)년 내섬시 봉사가 되었가 2년 뒤인 1596년(선조 29) 체직되었다. 이후 애한정을 세우고 기문과 <애한정팔영>을 지었던 1614년보다 일년 뒤인 1615년(광해 7) 상의원 별좌에 제수되었다.

김현성이 박지겸을 봉사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이호민, 이정귀에게 기문과 시를 부탁하였던 1614년 경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겸에게 <애한정팔영>의 시를 지어 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바로 짓지 못하였고 이호민이 지은 <애한정팔영>을 보고 이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현성이 지은 <애한정팔영>은 용계 김지남(金止男, 1559~1631)이 지은 팔영(八詠)의 원운이 되었다. 김지남의 문집인 『용계유고(龍溪遺稿)』에서는 제목이 <愛閑亭八詠次韻 主人朴知謙>이라고 되어 있어, 누구의 운에 차운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애한정의 주인이 박지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김지남의 시는 『소요당오세행적』에도 보이는

10) 李廷龜, 『月沙集』卷37, 「記」上, <愛閑亭記>: 乃若湖山之勝, 余未嘗寄目, 竊就君所命八景者而爲之詠.

데, 여기에서는 <龍溪金止男 次南窓韻>이라고 되어 있어 남창 김현성의 시에 차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옥(李穡, 1562~?)도 <애한정팔영>을 남기고 있는데, 이옥은 본관이 성주(星州)이며, 자는 중당(仲棠), 호가 지강(芝江), 혹은 취옹(醉翁)이다. 취옹이라는 아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강원감사로 재직할 때 술에 취하여 풍류를 즐기다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이옥도 이호민 보다 10세 아래이기는 하지만, 이호민, 김현성, 김지남과 같이 오연절구로 <애한정팔영>을 짓고 있다. 그러나 『소요당오세행적』의 설명을 보면, “芝江散人稿”라고만 되어 있어 이들 중 누구의 시를 차운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애한정팔영> 중에 마지막 <괴탄조어(槐灘釣魚)>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한 수가 일실되고 7수만 남아 있다.

이정귀 계열의 <애한정팔영>은 칠언절구의 형식으로 지어졌다. 이정귀의 문집인 『월사집』에는 <애한정팔영. 박익경 지점을 위하여 짓다(愛閑亭八詠. 爲朴益卿知謙作)>라고 되어 있어, 박지점의 부탁으로 지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정귀의 시에 차운하였다고 밝힌 인물은 백곡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이다. 그는 <애한정팔경. 월사이상공의 시에 차운하다(愛閑亭八景. 次月沙李相公韻)>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목도 <애한정팔영>이 아니라 <애한정팔경>으로 되어 있다.

박지점의 운에 차운한 것은 1765년(영조 41) 가을 7월에 5대 방손인 박명양(朴鳴陽)이다. 그는 <題愛閑亭記後>에서 5대조 박지점이 세운 정자이며, 월사, 오봉, 백곡 등이 시와 문을 지어 찬탄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건물을 옮겨 짓고 우암 선생이 발문을 지어 자손이 그 선조의 공업을 잇는 것을 찬미하였음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삼가 별점공의 운에 따라 <애한정팔영>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박명양은 이정귀의 시에도 차운을 남기고 있는데, <又次月沙相公韻>이라고 밝히고 칠언절구의 형식으로 차운시를 남기고 있다.

<애한정팔영>은 아니지만 ‘애한정’을 주제로 지은 시도 몇 수 남아 있다. 먼저 박지점은 칠언율시 1수, 칠언절구 2수, 오언절구 2수 등 모두 5수의 시를 남기고 있다. 제목은 없으며 애한정에서의 일상을 노래하고 있다.

鑿破窓前碧苔地 창 앞에 푸른 이끼 낀 땅을 파 연못을 만드니
天光雲影這中存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안에 담겼네.
讀罷義經成獨坐 『주역』을 다 읽고 홀로 앉아 있으니
水花庭草自朝昏 물과 마당의 풀이 절로 아침저녁을 맞네.

<애한정팔영> 중에서 <연꽃 핀 연못에 비친 달(荷塘夜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다른 것은 애한정팔영은 밤을 읊고 있지만, 위의 시는 낮시간의 연못을 읊고 있다. 창 앞에 이끼 낀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었으며, 그 연못에 천광운영(天光雲影)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연못 가에서 『주역』을 읽고 세상 만물의 오고 가는 이치를 깨닫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박지겸은 <애한정팔영> 이외에도 애한정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을 매우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체로 내용은 유학자로서 깨닫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서술하거나 일상의 소소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혼란한 시절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득신도 <애한정팔영> 이외에 칠언율시 1수를 남기고 있는데, 제목이 <愛閑亭韻>이다. 아마도 애한정에 걸려있던 시에 차운한 것으로 보이며, 원운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상평성 ‘東’ 자 운으로 1675년(숙종 1)에 지은 것이다. 내용은 애한정의 외견과 정자에 올라가니 호탕함이 무지개에 오른 듯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자에서 내려다보이는 강물의 모습과 월사 남창의 시를 찬미하고, 당시에 이들이 나누었던 교분이 얼마나 즐거웠을까를 상상하고 있다.

김득신의 ‘東’ 자 운의 칠언율시는 임호 박수검(朴守儉, 1629~1698)이 차운하여 2수를 남기고 있으며, 이조정랑의 지낸 이인우(李仁遇)의 차운시가 1수 있고, 이천재(李天賡)의 차운시 1수, 박명양의 <우차백곡운>이라는 제목으로 1수를 남기고 있다. 다만 『소요당오세행적』에는 임오년에 명곡산인(明谷散人)이 지었다고 하는 칠언율시 1수가 수록되어 있으나, 명곡 최석정의 문집인 『명곡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상 논의된 <애한정팔영>과 기타 애한정 관련 시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table 2] 애한정 제영시 일람 Poems Composed on Aehanjöng Pavilion

번호	작 가 (작품수)	제 목	형 식	창작시기	출전
1	朴知謙(13수) (1549~1623)	<愛閑亭八詠> 8수	칠언절구	1614, 7월	『逍遙堂五世行蹟』
		偶然小築久淹留 1수	칠언율시		
		鑿破窓前 등 2수	칠언절구		
		掃地栽花竹 등 2수	오언절구		
2	李好閑(8수) (1553~1634)	<愛閑亭八詠. 爲朴益卿賦之. 槐山>	오언절구	1614, 正月	『五峯集』卷1 『逍遙堂五世行蹟』

3	李廷龜(8寸) (1564~1635)	<愛閑亭八詠 爲朴益卿知謙>	칠언절구	1614, 10월	『月沙集』卷16 『逍遙堂五世行蹟』
4	金玄成(8寸) (1542~1621)	<愛閑亭八詠 謹步五峯相公韻> 『南窓雜藁』에 없음	오언절구	1614,	『逍遙堂五世行蹟』
5	金止男(8寸) (1559~1631)	<愛閑亭八詠次南窓韻>	오언절구		『龍溪遺稿』卷3 『逍遙堂五世行蹟』
6	李穡(7寸) (1562~?)	<愛閑亭八詠> * <槐灘釣魚> 없음	오언절구		『逍遙堂五世行蹟』
7	金得臣(9寸) (1604~1684)	<敬次月沙相公景韻> 8수	칠언절구	乙卯 (1675)	『栢谷集』冊2 『逍遙堂五世行蹟』
		<愛閑亭韻> 1수	칠언율시		『栢谷集』冊4 『逍遙堂五世行蹟』
8	朴守儉(2寸) (1629~1698)	<愛閑亭 次栢谷韻 二首>	칠언율시		『林湖集』卷2
9	李仁遇(1寸)	危亭高架	칠언율시		『逍遙堂五世行蹟』
10	李天栽(1寸)	高展詩筵	칠언율시	甲戌	『逍遙堂五世行蹟』
11	崔錫鼎(1寸) (1646~1715)	閑叟 (『明谷集』卷3, <閑叟漫吟>)	칠언율시	壬午	『逍遙堂五世行蹟』
12	朴鳴陽(18寸)	<愛閑亭八詠> 8수	칠언절구	乙酉孟秋	『逍遙堂五世行蹟』
		槐水薺薺 1수	칠언율시		
		<又次月沙相公韻> 8수	칠언절구		
		<又次栢谷韻>	칠언율시		

Ⅲ. 박지검 <애한정팔영>의 미적 특징

1. 직관(直觀)의 구체적 묘사

박지검이 애한정을 지은 이유는 단순히 자연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학자로서의 삶을 관조하고,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천지자연의 운행 질서를 발견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름다운 장면을 감상하려는 것보다 순간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자연을 관조하고 그 변화를 읽어내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지검의 팔경시에는 이호민이나 이정귀와는 다르게 현장의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이호민이나 이정귀는 실제의 자연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념적인 묘사로 문인으로서의 표현이 강할 수밖에 없다. 박지검의 직관의 자연 표현과 이호민, 이정귀의 관념적 자연 표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松岳晴嵐>

雨後輕嵐鎖碧山 비 온 뒤 가벼운 남기 푸른 산 두르니
 蔥籠山色有無間 울창한 산빛이 보일 듯 말 듯 하네.
 須臾捲却山依舊 잠깐만에 걷히니 산은 여전히 그 자리.
 斜倚山窓盡日看 산창에 기대어 온종일 바라보네.

박지겸의 <송악의 맑은 날 산기운(松巖晴嵐)>이다. 박지겸은 이미 비가 내리는 송악에서부터 바라보고 있다. <애한정기>에 따르면, 송악은 송명산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곳이다. 애한정에서 동쪽을 몇 리쯤에 있는 산이며,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다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팔경을 설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을 것이고, 이런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지겸의 시에는 현장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송악의 맑은 날 산기운은 매우 역동적이다. 비가 온 후 하얗고 가벼운 남기가 푸른 산기슭에 가로로 드리우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남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가볍다(輕)’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내가 덮이는 것은 소리도 없이 부드럽고 천천히 피어오르지만 사실은 순식간의 일이다. 박지겸은 그 순식간에 벌어지는 광경을 산창에 기대어 온종일 바라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내의 질감과 움직임을 ‘가볍다’라고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하얀 이내와 ‘푸른 산(碧山)’이 가지는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는 무엇보다 강렬함을 준다. 마치 당나라 최고의 시인인 두보(杜甫)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절구>에서 표현한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다(江碧鳥逾白)”를 떠올릴 수 있다. 푸른 산에 흰 이내가 피어오르더니 어느새 온 산이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잠깐만에 걷히고 다시 푸른 산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지겸은 눈앞에 펼쳐지는 실경을 섬세하지만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힘차게 변화하는 산의 모습을 한껏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 하루 종일 창문에 기대어 바라보고 있다. 그런 관찰이 순간순간 변하는 모양과 색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山龍濟物心 성상의 세상 구하려는 마음에도
 今年旱焦土 올해 가뭄으로 땅이 타들어 가네.
 朝看一抹嵐 아침에 한줄기 남기를 보니
 知作三農雨 삼농에 비가 내릴 줄 알겠네.

〈右松嶽晴嵐〉

朝來爽氣入虛簷 아침나절 서늘한 기운 빈 처마로 드니
 起向前山捲却簾 일어나 앞산을 보며 드리운簾을 걷노라.
 濃抹澹粧俱有態 짙고 옅은 빗갈들이 모두 자태를 뽐내는데
 農人閑作雨晴占 농사꾼들 한가로이 비 올까 개일까 점만 치네.
 〈松嶽晴嵐〉

위의 시는 이호민의 것이고 아래는 이정귀가 지은 〈송악의 맑은 날 산기운(松嶽晴嵐)〉이다. 이호민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수고로이 마음을 쓰는 노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 아침에 피어난 이내를 보고 비가 오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정귀의 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침이 되어 서늘한 기운에簾을 걷어 송악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짙고 옅은 자태를 뽐낸다고 산의 모습을 그려냈지만, 여기에는 어떤 색채감도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들은 바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호민과 이정귀의 시에는 자연의 생생한 생명력이 없고 활발한 역동성이 없다.

정자 동쪽 몇 리쯤에는 송명산(松明山)이 있어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아침저녁의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맑거나 비가 올지 금방 알 수 있어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며, 보이는 것이 천만 가지로 같지 않았다. 때로는 푸른 노을 한 줄기가 산허리를 두르면 해가 지기 전에 비가 내리므로 아랫마을 사람들이 그 노을을 보고 비가 올 줄을 알았다.¹¹⁾

이것은 박지점의 〈애한정기〉이다. 이호민과 이정귀는 바로 이 기문을 보고 관념적으로 시를 창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명산의 장점은 박지점이 포착한 바와 같이 비가 올 때도 맑을 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천만 가지로 변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호민과 이정귀는 송명산에 피어나는 이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올지 맑을지 알았다는 사건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石磴行人〉

一面青山小路通 푸른 산 한쪽으로 작은 길 나 있어

11) 朴知謙, 〈愛閑亭記〉: 亭之東數里許, 有松明山, 峰巒削立, 草木暢茂, 朝暮之態, 晴雨之狀變幻, 頃刻悅可人, 目者千萬不同. 時有青霞一抹, 帶于山腰, 則不日而雨, 其下居民見其霞, 而知其雨.

依稀人影夕陽中 저물녘 흐릿한 사람 그림자 보이네.
 行行盡向前村去 가고 또 가서 마을 앞에 이르니
 半是樵夫半牧童 반은 나무꾼, 반은 소먹이는 목동이라.
 回磴轉山腰 비탈길 산허리를 돌고 돌아
 行人如鳥進 길 가는 이 새처럼 솟아 가는 듯
 行行幾人歸 가고 또 가고 몇 사람이나 지나갔는지
 一波心影 하나하나 걱정의 그림자 드리웠네.
 <右石磴行人>

山腰一逕細縈雲 산허리 한 가닥 오솔길 구름 속으로 휘도는데
 筇影依依帶夕曛 지팡이 그림자 느릿느릿 석양빛을 띠었네.
 犬吠前村歸不遠 앞마을에 개 짖으니 돌아오는 이 멀지 않아
 兒童應已候柴門 아이들은 아마도 벌써 사립에서 기다릴 테지.
 <石磴行人>

<애한정팔영> 중 <돌길을 가는 행인(石磴行人)>이다. 여기에서도 박지겸의 시각과 다른 두 사람의 시각이 다름을 찾을 수 있다. 박지겸은 기구에서부터 청산의 한쪽으로 작은 길이 나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호민은 비탈길이 산허리를 돌고 돈다고 하였고, 이정귀는 산허리에 난 오솔길이 구름 속으로 이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실제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

승구도 구체적으로 저물녘이라는 시간적 한정을 두어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와 일치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호민은 산길의 험난함만을 강조하여 나는 새만이 갈 수 있을 만큼 좁은 산길인 ‘조도(鳥道)’로 묘사하고 있다. 그만큼 관념적인 묘사에 그치고 있다. 이정귀도 마찬가지로 석양빛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화자를 묘사하고 있다. 화면 속에 화자 자신을 넣어서 자신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돌비탈 길(石磴)이라는 전제와 어울리지 않는 묘사로, 전혀 객관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도 박지겸은 저물녘 흐릿한 사람들의 그림자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가고 또 가서 앞마을까지 가보니 반은 나무꾼이고 반은 목동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다르게 이호민은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들이 이 산길을 지나며 걱정을 얼마나 했을까라고 마무리하였다. 이정귀도 산길을 느릿느릿 걸어가던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두컴컴한 저녁 길을 걸어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앞마

을의 개가 짖는 것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렇다는 것은 벌써 날이 저문 상황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사립문 밖에서 기다릴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다. 문면을 따라 읽어가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황이 서로 맞지 않고, 시간의 설정과 인물의 설정, 그리고 기승전결의 연결성에서 구체적이거나 사실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박지겸의 <애한정팔영>에는 자신이 직접 바라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으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취한 눈 흐릿하여 구름처럼 보이니, 강촌과 산마을 아득히 구분이 어렵네. 문득 저녁 햇빛에, 긴 바람이 걷어가니, 두셋 인가(人家) 사립문 반만 닫혔네.(醉眼依稀望似雲, 水村山郭杳難分. 斜陽忽被長風捲, 三兩人家半掩門)”의 시에서도 이러한 박지겸 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재된 우국(憂國)의 충심

박지겸의 삶은 ‘충(忠)’과 ‘효(孝)’로 대표될 수 있다. 박지겸을 언급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한다. 태어난 지 돌도 되기 전에 어머니인 남양 홍씨를 여의었고, 겨우 10살 때 아버지 수안공의 병증이 위중하자 몸소 온돌에 불을 때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살펴 항상 적절하게 유지하였다고 한다. 아버지 수안공이 새롭게 전주 이씨를 들이시니, 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며, 만행으로서 여러 동생들을 잘 이끌고 돌보았다.

수안공은 먼저 남양홍씨 윤선(潤先)의 따님과 결혼하였으나, 소생이 없이 일찍 돌아가셨고, 재취로 다시 남양홍씨 윤균(潤均)의 따님과 혼인하였다. 박지겸의 어머니가 바로 이분이다. 그러나 박지겸이 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니, 다시 전주이씨 숙(淑)의 따님과 혼인하였다. 박지겸의 동생인 지양(知讓), 지인(知認), 지훈(知訓), 지경(知警), 지계(知誠) 등은 모두 전주 이씨의 소생이다.

임오년(1582, 선조 15)에 아버지 수안공이 돌아가시자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 피눈물을 흘리며 곡읍을 하니, 동네 사람들이 감읍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상례는 가례를 준수하였고, 소상 전에는 나물과 미음조차 다 먹지 못하니 점차 쇠약해져 사람들과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여서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보았다. … 정유년(1597, 선조 30) 대 부인께서 위급한 병을 얻어 날로 위중해지자, 공과 잡야공이 밤낮으로 간호를 하며, 일찍이 잠을 자러 가지 않고 목침으로 턱을 껴 채 잠시 눈을 붙이니 양쪽 눈썹이 모두 닳아 없어졌다. 병이 위독해지자 공은 막내아우와 살을 찢어 피를 내어 며칠 동안 어머니를 연

명하게 하였으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¹²⁾

이처럼 박지겸은 부모를 섬기기를 정성을 다하였으며, 동생들과 도타운 우애를 나누었다. 대부인 전주이씨는 돌도 지나지 않았던 박지겸을 키운 분이니 어머니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지겸의 효행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조정에 천거하여 효우가 출천하여 박속을 도맡게 하였다고 칭송하였다.¹³⁾

박지겸의 충성은 임진왜란 중에 하였던 그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화도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였으며, 선조의 명을 받아 적중(敵中)으로 들어가 원묘주(原廟主)를 봉심하고 강화로 이관하기도 하였다. 선조가 승하하자 국장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괴산에 물러나 애한정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서도 조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 부르면 곧바로 달려 나갔다. 1615년(광해 7) 상의원 별좌에 제수되자 나아갔다 2년 후인 1617년(광해 9)에 다시 괴산으로 물러났다. 애한정을 짓고 <애한정기>와 <애한정팔영>을 지은 시기가 1614년임을 상기해 볼 때, 괴산으로 물러난 후에도 출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직하고 엄정한 성품으로 인하여 쉽게 용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애한정팔영>과 그 외 박지겸이 남긴 몇 편의 시를 보면, 나라에 대한 근심과 시국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

<荷塘夜月>

秋夜蓮塘花正開 가을밤 연못에 꽃이 활짝 피어나니
輕風細細送香來 가벼운 바람 살랑살랑 향기를 보내네.
況逢雨後分明月 더구나 비 온 뒤 밝은 달이 떠오르니
詩思無端十倍催 시 짓고 싶은 마음 끝없이 재촉하네.

이 시는 <애한정팔영> 중에 <연꽃 핀 연못에 비친 달>을 읊은 것이다. 여기에서 박지겸은 온전히 자연과 동화되어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발가로 흐르는 개울에서 도랑을 파서 물을 대어 만든 연못에 연꽃이 가득 피자 산들바람에 전해오는 향기에 취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비가 온 뒤 청명한 하늘에 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12) 『逍遙堂五世行蹟』, <通訓大夫行尙衣院別坐朴公行狀> : 壬午丁外艱, 朝夕上塚, 哭泣之哀, 淚涕絕血, 鄰里感泣, 喪禮一遵家禮, 小喪前不盡菜漿, 漸毀之極, 目不視物人, 人皆垂涕而見之. … 丁酉大夫人得危疾經年沈重, 公與潛治晝夜扶護, 未嘗就寢, 或坐而假寐, 以木枕支額, 兩眉磨盡無一髮, 及病篤兄弟二人俱刺肥血, 得延■日之命, 聞者涕泣.

13) 權認, 「愛閑亭公 知謙 墓碣銘」: 公既孤事繼母, 率諸弟, 里中薦于朝曰 孝友出天, 可敦薄俗.

비추고, 연못 안에도 달이 뜨니,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이미 완전히 자연 속에서 은일하는 처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지겸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으며, 이것은 유자로서의 당연한 자세이기도 하다.

〈槐灘釣魚〉

一片苔磯傍小灘 이끼 낀 조각 바위 옆 작은 여울에
夕陽閑坐把漁竿 저물녘 한가롭게 앉아 낚싯대 드리우네.
桐江釣叟眞堪笑 동강에서 낚시하던 자롱이 진정 웃겠지만
何事關心漢鼎安 무슨 일로 한양 안정되기만 마음을 쓰는지.

박지겸의 〈애한정팔영〉 중에서 〈괴탄에서의 낚시〉 부분이다. 기구와 승구는 낚시를 주제로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여울 옆의 바위이기 때문에 이끼가 낄 수밖에 없으며, 저물녘 그 바위 위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앉아 있는 한가한 풍경이다.

그러나 전구와 절구에서 박지겸은 속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외형상으로는 풍진의 세상을 모두 잊고 아무런 기심도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면은 나라와 시국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 전구에서는 동강에서 낚시하며 지냈던 엄자릉(嚴子陵)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엄자릉은 동한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의 절친한 친구로, 이름은 광(光)이며, 성은 장(莊)이다. 유수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와 황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가 황제에 즉위하자 성을 엄(嚴)으로 바꾸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며 동강(桐江)에서 낚시를 하며 지냈다. 뒤에 광무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제수하려 하였지만 사양하고 은거하였다. 후에 그가 낚시하던 곳을 엄릉뢰(嚴陵瀨), 또는 엄릉조대(嚴陵釣臺)라고 하였다.

전구에서는 자신과 같이 물러나 낚시를 하였던 엄자릉을 등장시키고 있다. 엄자릉은 광무제가 간의대부를 제수하였지만 이를 완강히 물리치고 부춘산으로 은거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아직도 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지겸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지겸은 엄자릉이 비웃고 꾸짖는 다고 하여도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버릴 수 없음을 절구에서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박지겸이 사용한 ‘한정(漢鼎)’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한양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鼎)’은 혼란한 세상을 안정시키고 싶은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정(鼎)’은 다리가 세 개이고 양쪽에 귀가 두 개 있는 청동으로 만든 술이다. 용도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삶은 것이기는 하지만, 왕실을 상징하는 글자로 사용되었다. 하(夏)나라의 시조인 우(禹)임금이 전국의 청동을 모아 술을 만들면서 이후 역대

왕조의 왕권을 상징하게 되었다. 세 개의 발이 가장 안정적인 각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정립(鼎立)’ 과 같은 어휘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권이나 국가의 안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박지겸은 이처럼 ‘한정(漢鼎)’ ‘안(安)’ 과 같은 어휘를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은 한양이 안정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괴산에 물러나 있지만 한시도 한양과 국가의 안정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엄자룡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국가에 대한 염려는 박지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떨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박지겸이 지은 다른 시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

欲舒不適意 뜻에 맞지 않은 일 떨쳐내려고
 長嘯上東臯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탄식하네.
 傍人不識此 곁에 사람들 이런 마음도 모르고
 誤道醉春醪 봄 술에 취했다고들 말하는구나.

이 시는 『逍遙堂五世行蹟』에 수록된 것으로 오언절구의 형식이다. 박지겸은 기구부터 세사와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음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세사에 대한 불만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동쪽 언덕에 올라 홀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박지겸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항상 세사의 흐름을 신경 쓰고 있었으며,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수근댄다고 하였다. 박지겸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지,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등등 시골 생활에서 하는 일반적인 걱정이 아닌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박지겸의 근심과 걱정은 결국 국가와 시국의 안정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은 다음 시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偶然小築久淹留 우연히 지은 작은 집에 오래도록 머무니
 幽趣還同物外遊 그윽한 흥취 도리어 세상 밖에 노니는 듯.
 孤鶯與霞迷水渚 저녁놀 속에 외로운 피꼬리와 물가를 헤매고
 斷雲拖雨過山頭 비를 맞으며 조각구름 따라 산머리에 오르네.

傷時幾灑賈生淚 시절을 상심하며 얼마나 가의의 눈물을 뿌리고
 望北頻登杜子樓 북쪽을 바라보며 자주 두자루를 오르네.
 書劬年來終底用 근래에 필봉의 힘 끝내 쓸모없어졌으니
 謾吟花柳遣閑愁 그저 꽃과 버들을 읊으며 한가한 수심을 펴네.

이 시도 『逍遙堂五世行蹟』에 박지겸이 지은 것으로 수록된 것으로 제목은 없고 칠언율시의 형식으로 지었다. 수련에서는 애한정을 짓고 한가하게 세상 밖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함련에서는 실제로 자연과 함께 즐기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저녁놀 속에서 피꼬리를 찾아가고, 냇가에 나아가 한가하게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또한 비를 맞으며 구름 자욱하게 낀 푸른 산을 오르기도 한다. 이 함련에는 <애한정팔영>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을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경련부터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련 상구에서는 시절을 상심하여 가의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다. 가의(賈誼)는 중국 전한 초기의 사상가로 하남군 낙양 사람이다. 18세에 이미 수재라고 이름이 있었으며, 문제(文帝)의 총애를 받아 22세에 태중대부(太中大夫)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그는 전한의 제도와 역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수구파의 반대로 25세에 장사로 폄적되었으며, 33세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가의는 굴원과 함께 조정에서 추방되는 수모를 겪고도 언제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였던 지조와 절개를 가진 신하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박지겸이 경련 상구에서 매일 시절을 상심하며 가의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 것은 박지겸 자신도 비록 시골에 물러나와 살고 있지만 한시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의와 같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충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련의 하구에서도 북쪽을 바라보며 두자루(杜子樓)에 오른다고 하였다. 두자루는 당나라의 시성(詩聖) 두보가 누대에 올라 시절의 혼란함을 걱정하였다는 고사를 말한다. 안록산의 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의 와중에서 두보는 평생 이리저리 피난생활을 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누각이 있으면 올라가 고향을 바라보며 혼란한 시국이 언제나 끝날 것인지 탄식하는 시를 많이 지었다. <등악양루(登岳陽樓)>가 두보의 대표적인 등림시이며, <등루(登樓)>와 같은 시도 전쟁으로 혼란한 시국을 바라보는 괴로운 심정과 하루빨리 안정되어 왕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처럼 경련 하구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두자루에 오른다는 표현으로 북쪽의 한양을 바라보며, 시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시라도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미련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역할이 이제는 힘이 없어졌음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꽃과 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지내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만, 미련의 표현 속에는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박지겸은 한시도 나라와 시국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다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박지겸은 평생 ‘충효(忠孝)’를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보였고, 이러한 그의 생활은 그의 아들인 유원(由元)과 유혼(由渾)에게로 이어져 지성으로 부모를 섬긴 효행이 인정되어 정려(旌閭)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나라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실천하였다.

말년에 애한정을 짓고 은거하면서 주위의 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 오봉 이호민, 월사 이정귀, 남창 김현성, 용계 김지남 등이 모두 <애한정팔영>을 지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애한정은 단순히 거주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가적 수양과 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박지겸이 지은 <애한정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애한정팔영>은 애한정 주위의 뛰어난 경치 중에서 여덟 가지를 선정한 것으로 오랫동안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지겸의 <애한정팔영>은 이호민이나 이정귀의 시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호민과 이정귀의 시는 직접 보지 않고 박지겸이 제공한 기문의 내용을 보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관념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애한정팔영>을 통해 본 박지겸의 생각은 한시도 나라와 시국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잊은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지겸이 지은 <애한정팔영>은 물론, 그 외에 남긴 시문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逍遙堂五世行蹟』
 李好閔, 『五峯集』
 李廷龜, 『月沙集』
 金玄成, 『南窓雜藁』
 金止男, 『龍溪遺稿』
 金得臣, 『栢谷集』
 朴守儉, 『林湖集』
 宋時烈, 『宋子大全』
 權得己, 『晚悔集』
 鄭澹, 『丈巖集』
 宋秉璿, 『淵齋集』
 李根元, 『銀溪集』

박연호, 2008, 「중원의 누정문학-괴산지역의 누정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33: 1-32쪽.
 전재동, 2000, 「權得己의 「論語僭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최경환, 2002, 「樓亭集景詩의 장르상의 특성과 作詩 原理」, 『東洋漢文學研究』16: 285-326쪽.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 Soyodang ose haengiök. 逍遙堂五世行蹟.
Chöng, Ho 鄭浩. *Changamjip* 丈巖集.
Kim, Chinam 金止男. *Yonggye yugo* 龍溪遺稿.
Kim, Hyönsöng 金玄成. *Namch'ang chapko* 南窓雜藁.
Kim, Tüksin 金得臣. *Paekkokchip* 栢谷集.
Kwön, Tükki 權得己. *Manhoejip* 晩悔集.
Pak, Sugörm 朴守儉. *Imhojip* 林湖集.
Song, Pyöngsön 宋秉璿. *Yönjaejip* 淵齋集.
Song, Siyöl 宋時烈. *Songja taejön* 宋子大全.
Lee, Chönggu 李廷龜. *Wölsajip* 月沙集.
Lee, Homin 李好閔. *Obongjip* 五峯集.
Lee, Künwön 李根元. *Ŭn'gyejip* 銀溪集.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Choi, Kyunghwan. 2002. "The poems about scenery viewed from a pavilion(樓亭集景詩)and the spatial character of the pavilion"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16: 285-326.
Jun, Jae-Dong. 2000. "A Study of Kwön Tük-ki's Nonö ch'amüi (論語僭疑)" Master's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ark, Youn-ho. 2008. "Pavilion literature of Jung-won area"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3: 1-32.

Abstract

Pak Chigyŏm's Establishment of Aehanjŏng and the Patterns of Rhyming Responses to Aehanjŏng p'aryŏng

Eo, Kang-seok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of Pak Chigyŏm, who lived in seclusion in Koesan, Ch'ungbuk Province, during the mid-Chosŏn period, and analyzes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Aehanjŏng p'aryŏng. Pak Chigyŏm was a figure who consistently practiced loyalty and filial piety. He showed deep devotion to his parents and maintaine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state, remaining prepared to serve the country whenever necessary.

In his later years, Pak built Aehanjŏng and lived in seclusion while actively interacting with scholars in the surrounding region. Literary figures such as Obong Yi Homin, Wŏlsa Yi Chŏnggu, Namch'ang Kim Hyŏnsŏng, and Yonggye Kim Chinam composed rhyming responses to Aehanjŏng p'aryŏng, thereby extending its literary influence to later generations. Aehanjŏng was not merely a residential retreat but a space intended for Confucian self-cultivation and scholarly exchange, as is shown in Pak Chigyŏm's Aehanjŏng ki.

Aehanjŏng p'aryŏng consists of eight scenic views around Aehanjŏng selected through Pak's long-term observation. Unlike the poems of Yi Homin and Yi Chŏnggu, which were composed on the basis of inscriptions provided by Pak rather than direct observation, Pak's own poems were grounded in his personal experience of the site. As a result, they present more concrete and rational descriptions of the landscape and its mean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Aehanjŏng p'aryŏng reveals Pak Chigyŏm's continuing concern for the country and public affairs, even during his life in seclusion. His poems and other writings show that he regarded retreat not as withdrawal from the world but as a space for moral cultivation, literary exchange, and sustained commitment to the stability of the state.

Key words: Pak Chigyŏm, Aehanjŏng, Aehanjŏng p'aryŏng, Yi Chŏnggu, Yi Homin, Song Siyŏl, Koesan, Ch'ungbuk Province